

# 한경 BUSINESS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하반기 주식시장 이끌 주도주는 무엇?  
새로 발견된 다빈치의 명작 가치는  
공동투자 대안 '부동산 펀드'의 매력

## 한국은 지금 휴가 혁명 중

### '들썩들썩' 평창 부동산 시장을 가다

'후원은 No' 독립성 지키는 미국의 대안 싱크탱크들  
백담사 템플스테이 본지 기자 2박3일 체험기  
수익률 극대화하는 '전세의 마술' 따라잡기



값 3,500원



## 브라질 농업

# 유전자 변형 기술로 新농업 혁명 추진

정철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브라질은 1930~1940년대부터 '세계의 창고'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농업 생산량이 많았다. 현재에도 여전히 브라질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위의 농업 수출국이다(설탕·쇠고기·닭고기·커피 등은 1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브라질의 국토 총면적 8억6148만8000헥타르 중 농업 지역이 2억6350만 헥타르로 추정된다. 한국의 농경지 면적 184만 헥타르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규모다.

8275명 가운데 2113명이 연구원인데, 이중 99%가 석·박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엠브라파 내에는 중서부 지방을 위한 팀, 아마존 지방을 위한 팀 등 지역별 팀이 운영되고 있고 쌀 관련 팀, 카사바 관련 팀 등 작물별 팀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엠브라파는 북미(미국)·유럽(영국·프랑스)·중남미(베네수엘라·파나마)·아프리카(가나·말리·모잠비크·세네갈)·아시아(한국)에서도 사기업 또는 대학이나 정부 기관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세계의 곡물 창고로 불리는 브라질은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3위의 농업 수출국이다. 사진은 콩 수확 장면.

브라질이 넓은 국토와 다양한 기후대를 자랑하고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도 별로 없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브라질이 농업 대국으로 발전한 데에는 이런 천혜의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만으로 오늘날 브라질의 농업 생산력을 설명하는 것은 선부른 속단이다.

브라질의 현재와 같은 농업 생산력을 설명하려면 국영 연구 기관 엠브라파(EMBRAPA: 브라질 농업기술연구원)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엠브라파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1973년 4월 26일 설립됐다. 엠브라파는 설립 이후 9000여 개의 각종 농업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 2008년 기준으로 직원

### 국영 연구 기관이 농업기술 혁명 이끌어

엠브라파가 브라질의 농업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프로젝트로 중서부 지방 개발을 들 수 있다. 브라질 중서부는 토양이 산성인 사바나 지역으로 농업에 적합하지 않아 역사적으로 농업 생산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이었다. 엠브라파는 인과 석회를 이용해 이 지역의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고, 온대기후 작물인 콩을 전통적인 교배 방식으로 열대기후에 적합하게 변형시켰다. 이와 함께 다양한 온대성 초지를 개발해 목축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정부는 남부 지방에 비해 낮은 가격에 농지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많은 농업인구를 중서부 지역으로 유인했다. 그 결과 30~40년 만에 브라질 중서부 지역은 농업의 불모지에서 옥수수와 콩 등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경작지로 변했다. 브라질이 농업 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한 데에는 중서부 지역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 엠브라파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엠브라파는 유전자 변형 기술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전통적인 교배 방식에 따른 농업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최근에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올 6월 엠브라파는 독일의 바스프(BASF)와 유전자 변형 기술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술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엠브라파가 앞으로 또 어떠한 농업기술의 발전을 가져올지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